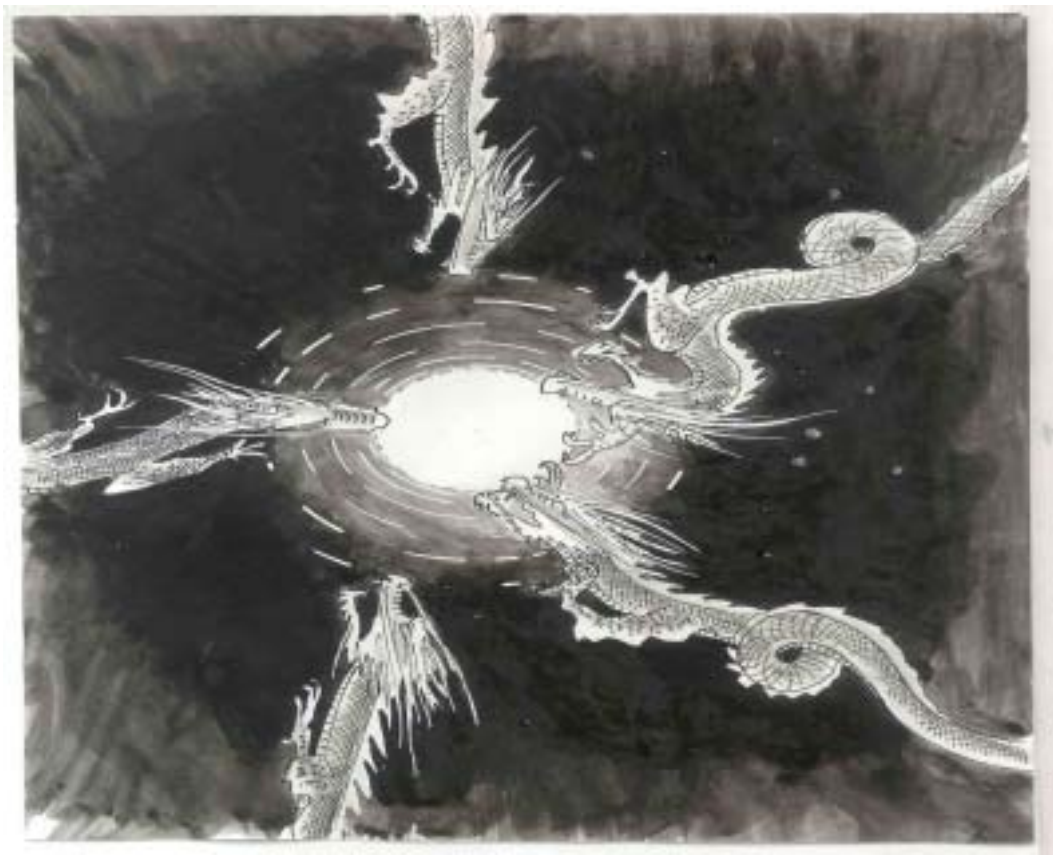
다섯 마리 용이 구슬을 다투었던 고장, 천안

'천안삼거리'와 호도과자로 유명한 천안은, 고려 태조 왕건이 '오룡쟁주'라 했던 곳이다. 다섯 마리의 용이 구슬을 놓고 다투는 형국이라는 뜻이다. 그 이야기는 『고려사』에 수록되어 전한다.

>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여 즉위한 어느 날이었다. 술사 예방(藝方)이 전국을 둘러보고 돌아와 태조에게 지금의 천안 땅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은 삼국의 중심이고, 다섯 용이 구슬을 다투는 지세이므로, 큰 관청을 설치하면 백제가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태조는 몸소 산에 올라 산천을 둘러본 후, 만족스러워하고, 부(府)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13년 이곳에 동서도솔(東西兜率)을 합하여 천안부(天安府)로 삼고 도독(都督)을 두었으니, 훗날 주변의 1군 7현을 관할하는 큰 고을이 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고려사』 56卷 志10 地理1 天安府條)



당시 천안은 후삼국 세 나라의 국경이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이 때문에 천안을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왕자산성(王字山城)을 쌓고, 강무장(講武場)을 설치하였으며, 왕자산에 유려왕사(留麗王寺)와 마점사(馬占寺)를 지어 머물기도 하였다. 지금의 달북재[縣鼓山]에는 고정(鼓庭)을 설치하고 군사 10만명을 주둔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천안을 중시했던 까닭에 후일 태조묘(太祖廟)가 세워졌다. 사실 오늘날의 '천안(天安)'이라는 지명은 이때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면 '오룡쟁주'의 다섯 마리 용과 구슬은 어디일까? 천안 도심 서편에 위치한, '봉황이 날개짓을 하는 형상'의 봉서산(鳳棲山)이 바로 그곳이다. 나즈막하게 굽이치는 듯한 산허리가 용이라면, 구슬은 남산공원이 된다. 이곳은 현재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자리에 신사(神社)가 건립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조선시대 천안 객사에 있었던 용주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 주변의 나즈막한 산들을 그냥 스쳐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건설 등으로 점점 산의 모습은 가리워져만 가고 있다. 봉서산의 '봉황 부리'에 해당되는 곳이 훼손되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천안의 옛 산천은 고속철도 역사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더욱 훼손될 것이다.

다섯 마리 용의 고을 천안은 사방으로 뻗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북으로 가면 서울이요, 동쪽으로는 영남, 남쪽으로는 차령을 넘어 호남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 때문에 천안삼거리라 하나, 서쪽으로 가면 내포, 그 북쪽은 서해로 이어지니, 실상은 다섯거리가 된다. 이렇게 사방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탓에 태조 왕건이 중시했던 것이리라. 그 결과는 많은 문화유산이었다.

천안은 현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또한 역사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옛 전설을 간직한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개발 논리로 인하여, 기억 너머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태조묘는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고정은 정확한 지점마저 불분명한 채 지명만 전해진다. 그 옛날 태조 왕건이 품었던 깊은 뜻을 앞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는 묘책은 없을까?

<사진> 대동여지도, **오룡쟁주 형국을 보여주는 고지도